

미국인 선교사와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한국 근대 양악사의 “한국 뛰어넘기”

허 지 연

1. 한국 근대 양악사의 “한국 뛰어넘기”
2. ‘한국 근대 양악사’가 진술하는 이화여전 음악과의 위상
3. 앨리스 아펜젤러가 보고하는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출범
4. 이화여전 음악과 교원의 교육적 배경: 『이화 칼리지 카탈로그』와 『이화여자전문이화보육학교일람 (소화12년)』을 중심으로
5. 1920·30년대 한국 사회 속의 이화여전 음악과: 차별성과 사회적 역할
6. 이화여전 음악과와 정치·문화적 제국주의

개 요

이화여자전문학교(이하 이화여전) 음악과는 식민지 시기 한국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유일한 전문음악교육기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 근대 양악사 연구에서는 그 위상에 합당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근대 양악사가 한국 땅에서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는 이화여전 음악과를 연구 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한국과 한국인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한국 근대 양악사 서술을 제안한다. 이화여전은 식민지 시기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운영된 교육기관이기에, 미국 및 일본의 근대(음악)사와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화여전과 선교사가 펴낸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여전 음악과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어떤 성격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당시 이화여전 음악과에서는 미국계 교육이 실시되었고, 피아노 교육이 중심에 놓였으며, 음악중등교원이 배출되었다. 다음으로 이화여전 음악과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논점들이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제안함으로써, 이화여전의 음악교육이 정치·문화적 제국주의의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주제어: 이화여자전문학교, 이화여전 음악과, 근대 양악사, 음악교육, 음악교사, 피아노.

1. 한국 근대 양악사의 “한국 뛰어넘기”

이 땅에 서양 음악이 들어와 뿌리를 내린 것은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던 시기의 일이다. 이 때는 힘이 강한 세력이 무력으로 타인의 땅을 차지하고, 토착민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던 시대였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침 없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오가던 길을 따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였으니, 당시의 사회에는 익숙함(낯음)과 낯설음(새로움)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한국 근대 양악사(洋樂史)가 주로 서술하는 19세기 말에서 1945년까지의 시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제화된 시기였을 것이다. 초창기의 양악 문화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서양(특히 미국)에서 온 선교사 음악가들이거나 을사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근대적 교육 현장에 투입된 일본인 음악가들이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한국사에서 마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서양인과 일본인이 한국 땅에서 활동하였으며, 이들은 정치적 강자로 또한 문화적 강자로 한국인과 대면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근대 양악사를 제대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음악가들의 활동과 이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정치사회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개입했던 음악적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음악관이나 음악적 수준, 음악활동의 목적 등에 대해 두루두루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 근대 양악사 서술은 이 지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¹⁾ 기존의 양악사는 기본적으로 한국 땅에서 한국

1) 한국의 근대 양악사를 통사적으로 기술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이유선의 『한국 양악 100년사』, 노동은의 『한국 근대 음악사 1』, 이강숙·김춘미·민경찬 공저 『우리 양

인에 의해 이루어진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기에, 서양음악 유입 초창기의 미션 스쿨의 설립이나, 군악대와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 1852-1916)에 관한 설명, 일제의 감독 하에 발행된 『보통교육 창가집 제1집』²⁾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에 의한 음악활동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음악사 서술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양악의 씨앗을 뿌리고 어디론가 증발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에 필자는 한국 근대 양악사가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지리적·민족적 ‘경계’를 뛰어 넘어 바깥 세계와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며, 그 시발점으로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화여자전문학교(이하 ‘이화여전’으로 표기)는 미국인 여성 선교사들이 세운 여학교로 그 출발부터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전 음악과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 근대 양악사의 “한국 뛰어넘기”³⁾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이화여전 음악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 그 출발점을 재점검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결론을 맺고 논의를 마무리하는 닫힌 구조를 갖기보다는, 필자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열린 구조를 지향하고자 한다.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서는 먼저 한국 근대 양악사 서술에서 이화여전 음악과가 차지하는 위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화여전 출범의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화여전에서 펴낸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음악과에 재직했던 여성 선교사들

악 100년』, 민경찬의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 (양악편): 한국 근·현대 우리 양악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2) 大韓帝國學部 編, 『普通教育 唱歌集 第一輯』(1910).

3)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박사학위 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9), 4.

및 한국인 교원들의 교육적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식민지 조선(colonial Korea)의 양악계에서 이화여전 음악과가 어떤 성격의 기관으로 존재하였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화여전 음악과는 그 존재 자체가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미국 및 일본의 근대 음악사와 맥락을 공유하는 “제국적 지배 질서”⁴⁾ 내에서 빚어진 문화정치의 결과물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한국 근대 양악사’가 진술하는 이화여전 음악과의 위상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에서 펴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⁵⁾는 이화여전 음악과의 교육 내용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를 기술하면서, 이화여전 음악과의 선구자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비단 ‘학교사’(學校史) 뿐 아니라, 이화여전을 다룬 기존의 논문들 역시 같은 지향점을 보여준다. 최승현의 “이화음악 1920년대 - 1930년대의 음악교육”⁶⁾과 “1930년대 이화 음악과의 『피아노선율법』 출간과 선진 20세기 피아노교수법의 도입”⁷⁾, 김은하의 “이화학당과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중심으로 본 초기 한국 여성작곡가 연구”⁸⁾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당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전문 음악가를 보유하고

4)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4.

5)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나남출판, 2003).

6) 최승현, “이화음악 1920년대 - 1930년대의 음악교육,”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15/1 (1997), 211-246.

7) 최승현, “1930년대 이화 음악과의 『피아노旋律法』 출간과 선진 20세기 피아노교수법의 도입,” 『이화음악논집』 10/2 (2006), 1-31.

8) 김은하, “이화학당과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중심으로 본 초기 한국 여성작곡가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3 (2009), 47-78.

있었으며 유일하게 4년제 교과과정을 운영하였던 이화여전 음악과에서 이루어진 음악 교육과 음악 관련 활동은, 다른 미션 스쿨의 음악 교육 및 활동이나 사설 교육 기관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체계적이었으며 수준이 높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기존 근대 양악사 문헌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유선의 『한국 양악 100년사』⁹⁾는 송실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음악활동과 그곳을 졸업한 음악인들의 활동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화학당의 설립을 제외하고는 이화여전 음악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화여전 출신 음악가 중 극소수의 활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론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기관으로서의 이화여전 음악과에 대한 논의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강숙 등이 저술한 『우리 양악 100년』¹⁰⁾은 음악전문교육기관에 대해 다루면서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를 송실전문학교의 음악활동, 연희전문학교의 음악부와 함께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질적인 수준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면 송실전문 및 연희전문 음악부를 이화여전 음악과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정도로 이화여전 음악과가 우위에 있다.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 음악가의 수나 교과과정, 졸업을 위한 요건, 기관이 부여하는 자격증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송실전문 및 연희전문 음악부를 이화여전 음악과와 함께 음악전문교육기관으로 다루는 것은, 당시 한국의 음악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무리가 있다.

현재까지 원로 음악가로 이름을 남긴 음악인들의 경력이나 당시 양악계에서 활동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이유선과 이강숙 등의 서술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1945년 이전에 음악가로 매체에 오르내리던 인물 중 대다수가 송실전문 또는 연희전문을 거쳐 외국 유학을

9) 이유선, 『한국 양악 100년사』 (음악춘추사, 1985).

10)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2001).

다녀온 남성 음악가들이기 때문이다. 즉 근대 양악사 서술에서 송실전문과 연희전문의 음악 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그들이 실시한 음악 교육의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졸업생들의 음악 활동과 해방 이후의 한국 음악계 내에서의 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 양악사 서술에서 이화여전 음악과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화여전 출신의 여성 음악가들이 남성 음악가들이 주류를 이루는 식민지 조선 양악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30년대 잡지에 실린 양악계 관련 칼럼들을 살펴보면 양악계의 인사로 자주 거론되는 몇 명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계정식, 안기영, 현제명, 홍난파 등의 남성 음악가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취재의 대상으로 혹은 칼럼의 필자로 자주 지면에 노출되었다. 여성으로는 피아니스트 김원복과 성악가인 정훈모, 박경희 등이 비교적 많이 소개되었다. 반면에 이화여전 출신의 여성 음악가들은 ‘여류 음악가’나 ‘이화여전 음악과’를 다루는 칼럼에서는 주목을 받지만, 남성 음악가들과 동일한 무대에서 활동하는 독자적인 음악가로 조명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물론 대중 매체의 기사만으로 당시 양악계의 전체 상황을 유추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면에 어떤 기사가 실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매체의 성격이나 대상이 되는 독자층, 기타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고려가 작용하기 때문에,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음악가들이 바로 당시 양악계에서 활동한 최고 수준의 음악가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매체에서 구성하는 ‘양악계’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갖는 영향력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매체에 음악계 인사로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음악적인 능력과는 별개로 음악가로서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이화여전 출신의 여성 음악가들은 식민지 조선 양악계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일찌감치

소외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이화여전 음악과가 근대 양악사 서술에서 소홀히 취급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엘리스 아펜젤러가 보고하는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출범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전신은 1886년 북감리교 해외 여성 선교회(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이하 WFMS로 표기) 소속의 선교사인 매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 1832-1909)이 세운 이화학당이다. 개교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룬 이화학당은 1910년 대학부를 설치함으로써 한국 여성 교육사에 큰 획을 그었다. 매리온 칸로(Marion L. Conrow)¹¹⁾가 쓴 『우리들의 이화』(Our Ewha: A Historical Sketch of Ewha Womans University)에 의하면, 이화학당 대학부 시기의 교육에서 중심이 된 것은 영어와 음악, 체육, 가정경제(home economics), 유치원 교원 양성 등이었다.¹²⁾

이화학당 대학부는 1925년 총독부로부터 예과 1년, 본과 3년 과정의 전문학교(專門學校) 인가를 취득함으로써 다시 한 번 식민지 시기의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학부에서 운영하였던 여러 전공 중 최초로 인가를 받은 것은 문과와 음악과이며, 뒤이어 1929년 가정과가 인가를 취득하였다. 한편 유치원 사범과는 1929년 이화보육학교로 분리되었다.¹³⁾

전문학교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었던 식민지 시기, 일본

11) 매리온 칸로는 1922년에 WFMS 소속 선교사로 한국에 온 이래, 『우리들의 이화』를 집필한 1956년 현재까지 선교사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12) Marion L. Conrow, *Our Ewha: A Historical Sketch of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1956), 11-21.

13)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170-175.

이나 구미로 유학을 떠나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일제는 1911년 공포된 “조선교육령”(칙령 제229호)에 대학교육에 관련된 조항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식민지 조선에 대학을 설립할 의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문학교에 관한 조항을 두었을 뿐이다.¹⁴⁾ 전문학교 관련 조항을 보면, “전문학교는 고등의 학술 기예를 교수하는 곳으로 함”(제25조), “전문학교의 수업 년한은 3년 내지 4년으로 함”(제26조),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함”(제27조) 등으로 간단히 정하고 있다.

이화여전이 인가를 받기 이전인 1924년까지의 고등교육상황을 보면, 1924년에 막 개교한 경성제국대학¹⁵⁾이 고등교육기관의 정점에 있었으며 5개의 관립전문학교와 3개의 사립전문학교가 존재하였다. 이들 8개 전문학교의 교명과 소재지, 인가년도, 학생 수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¹⁶⁾

14) 전문학교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은 마월철 / 한용진 옮김, 『한국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교육과학사, 2000), 80을 참고하였다.

15)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제국이 보유하고 있던 9개의 제국대학 중 하나로, 전체 제국대학 중 여섯 번째로 설립되었다. 참고로 1929년에서 1942년까지의 경성제국대학의 졸업생 중 한국인 대 일본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의학부의 경우는 73 대 27, 법문학부의 경우는 60 대 40으로 일본인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경성제국대학에 대한 내용은 마월철 / 한용진 옮김, 『한국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 119-160 참조.

16) 마월철 / 한용진 옮김, 『한국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 122. 1923년 당시의 통계이다.

〔표 1〕 1923년 현재, 전문학교 현황

설립	학교명	소재지	인가년도	학생수		합계
				일본인	조선인	
관립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	1916	147	-	147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	1916	183	216	399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	1916	87	48	135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	1922	198	15	213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	1922	107	60	167
사립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경성	1917	-	63	63
	연희전문학교	경기도	1917	-	260	260
	보성전문학교	경성	1922	-	260	260

위의 3개의 사립전문학교에 더하여 1925년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숭실전문학교가 인가를 받게 되어, 사립전문학교가 5개로 증가한다. 이들 중 보성전문학교를 제외한 4개의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식민지 시기 한국 교육계 내에서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립전문학교의 경우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본인 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 사립전문학교는 조선인 학생들만이 다녔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전문학교 인가의 취득은 ‘이화’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인가 당시 교장을 역임했던 앨리스 아펜젤러(Alice R. Appenzeller, 1885-1950)¹⁷⁾는 1925년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써내려갔다.¹⁸⁾ 먼저 아펜젤러는 이화 설립 40주년을 맞아 전문학교 인가가 정부의 관계자들의 협조로 이루어졌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창립기념일

17) 배재학당을 세운 북감리교회 소속의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의 딸로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백인 아기이다. 이화의 설립자인 스크랜튼 여사가 앨리스가 태어날 때 산파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18) Alice R. Appenzeller, “Changes at Ewha Hakdang, 1925,”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25), 45-46.

행사에 감리교회의 허버트 웰치(Herbert G. Welch, 1862 - 1969) 감독이 특별히 참석하여 전문학교 인가를 발표하였음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의례적인 코멘트에 이어, 그녀는 전문학교 인가의 진정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새로운 정부의 인가로 **영어와 음악을 전공한 졸업생에게 자격증**이 수여된다. 이제 그들은 인가받은 상급학교에서 이 두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교육은 도쿄 유니언 크리스천 여자 대학(Tokyo Union Christian College for Woman)과 같은 위상에 놓이게 되었다. 교과과정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졸업생들은 이제 일본 내의 인가받은 기관의 졸업생들과 같은 자격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교직 지원자가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추었다 해도 특정한 디플로마가 없는 한 교사로 취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학교는 인가 받지 않은 상태로는 1년조차도 더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었다.** 긴 코스를 마친 소녀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 이제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에서 소녀들의 작은 모임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70명의 학생과 10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기관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¹⁹⁾ (강조는 인용자)

우리는 위 인용문을 통해 앨리스 아펜젤러 교장이 ‘교사 자격’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전문학교 인가를 절박하게 추진하였으며, 졸업생들의 취업에 무엇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였음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이화’라는 이름에서 여전히 소녀들의 소그룹을 떠올리던 사람들에게 정부 인가를 취득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우리는 이화여전의 선교사들이 직면했던 현실을 엿보게 된다.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그려지는 여성 선교사들에게도 삶은 치열한 투쟁의

19) Alice R. Appenzeller, “Changes at Ewha Hakdang, 1925,” 46.

현장이었다. 그들은 졸업생의 취업과 학교의 장래를 위해 고민해야 했으며, 한국 내 뿐 아니라 일본 소재의 학교와도 경쟁해야 했다. 또한 여성 선교사가 세운 여성교육기관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에도 맞서야 했다.

4. 이화여전 음악과 교원의 교육적 배경: 『이화 칼리지 카탈로그』와 『이화여자전문이화보육학교일람 (소화12년)』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이화여전 관련 자료 중 이화여전이 직접 펴내거나 당시 음악과에 재직했던 선교사 및 한국인 교원이 남긴 1차 자료의 양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의 자료만을 가지고 이화여전 음악과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차적으로 이화여전 음악과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외국인 선교사 교원의 출신지와 생몰년도, 한국에 파견되기 이전의 경력조차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전 음악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해외(특히 미국)의 선교 단체 관련 아카이브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런 현실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화여전 관련 정보는 교원들의 명단과 그들의 교육적 배경 정도이다. 이화여전에서 펴낸 편람 성격의 자료에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으며, 선교사들이 남긴 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이화여전 음악과의 성격을 추적하는 작업을, 현재 접근이 가능한 국내 자료들을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음악과 교원의 교육적 배경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화여전에서 펴낸 편람 성격의 자료로는 『이화 칼리지 카탈로그』(Ewha College Catalogue, 이하 『카탈로그』로 표기)²⁰⁾와 『이화여자전문 이화보육학교일람 (소화12년)』(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學校一覽 (昭和十二年), 이하 『일람』으로 표기)²¹⁾가 전해진다. 전자는 1930년 발행되었으며, 후자는 1937년 발행되었다. 두 자료는 여러 면에서 다른데,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영어로 기술된 반면 후자는 일본어로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에 머물렀던 선교사 사회의 공용어는 당연히 영어였다. 이는 미션 스쿨에도 적용되어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의 공문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이름의 표기 방식도 미국의 예를 따랐다. 미션 스쿨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결혼을 한 여성의 경우 서양식으로 남편의 성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이화여전 음악과 초창기에 재직하였던 이은라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Laura Ye’로 표기되어 있다. 김애식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정일사(미국명, Lyon Jung)와 결혼한 이후 정애식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는 1937년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되어, 『일람』에는 선교사들의 이름이 가타카나로 표기되게 된다.

『일람』이 출판된 1937년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해로, 일제의 군국주의적 침략이 노골화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식민지 조선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화여자전문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1937년 전후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화를 둘러싸고 벌어졌는지를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단지 몇몇 자료에서 당시의 힘들었던 상황을 암시하는 글귀를 읽을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매리온 칸로는 『우리들의 이화』에서 1937년에서 1945년을 “시련의 시기”로 부르고 있다.²²⁾ 또한 『이화100년사』는 신사참배를 받아들

20) *Ewha College Catalogue* (Y. M. C. A. Press, 1930).

21) 『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學校一覽 (昭和十二年)』 (1937).

22) Marion L. Conrow, *Our Ewha: A Historical Sketch of Ewha Womans University*,

인 감리교의 모습을 “1937년 이후로 매월 1일과 15일에 남산을 오르내리며 민족의 비극을 곱씹어야했다”²³⁾고 적고 있다.

필자는 『일람』이라는 문서 한 권이 무엇보다도 1937년에 이화여전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보면 교육당국의 손에 의해 이화여전의 모든 자료들이 철저히 열람되었으며, 그 결과가 한 권의 책에 집약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부록을 제외하고도²⁴⁾ 150쪽에 달하는 문서로 이화여전 관련 법령, 이화여전 학칙, 이화보육학교 학칙, 제규정 및 회칙, 이사 및 교직원 명단, 생도 명단, 졸업자 명단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화여전이 미국인 여성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미션 스쿨이며 여성들의 활동영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일본어로 세밀하게 기술된 『일람』을 들여다보는 심정이 착잡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화여전 음악과 교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일람』에 서술된 1937년 현재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원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1937년은 이화여전이 가장 많은 수의 교원을 보유했던 해로,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이화여전이 가장 확장된 시기였다.²⁵⁾ 또한 『일람』에는 재직 교원이 문과, 음악과, 가사과 별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화여전 내에서의 각 과의 비중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1937년 재직 교원의 학과별 인원수와 국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7.

23)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277.

24) 부록은 쪽 수가 인쇄된 부분이 잘려진 상태여서 책 전체의 쪽 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25)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130.

〔표 2〕 1937년 현재, 이화여전의 교원 현황

	교장	부교장	문과		음악과		가사과	
			미국인	6	미국인	5	미국인	1
국적 및 인원수	엘리스 아펜젤러 (미국인)	김활란 (한국인)	일본인	2	일본인	0	일본인	3
			한국인	14	한국인	7	한국인	6
			합계			22명		12명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속 교원의 수가 가장 많았던 학과는 문과로 2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반면 음악과와 가사과에는 각각 12명, 10명의 교원이 속해 있었다. 교원들의 국적과 관련해서 먼저 미국인 교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총 12명의 미국인 중 음악과가 5명 즉 40퍼센트 정도를 보유하여 가장 높았으며, 가사과는 1명의 미국인을 보유하여 미국인 교원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반면 일본인 교원의 비중을 보면, 총 5명의 일본인 중 가사과에만 3명이 재직하여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음악과에는 일본인 교원이 없었다. 한국인 교원의 비중은 모든 학과에서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제 『카탈로그』와 『일람』에 기초하여 1937년 이전의 이화여전 음악과 교원의 현황과 출신 학교를 정리해보겠다. 『카탈로그』에는 1930년도 재직 교원 명단이 실려 있고, 『일람』에는 1937년 재직 교원 명단과 구(舊)교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자료를 정리하면 1937년 이전에 이화여전에서 활동한 음악교원들의 전체 명단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은 이화여전 음악과 선교사 교원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이화여전 음악과의 선교사 교원

재직상황	이름	출신 학교 ²⁶⁾	재직년도 27)
재직 교원	캐서린 베이커	National Training school, 디플로마 - 1901	1927-40
	조세핀 대머론	North Carolina College for Women, 디플로마 - 1905 Institute of musical art of New City, 디플로마 - 1923	1927-35
	카트린 고어만	Wien Konservatorium ²⁸⁾	미기재
	그레이스 우드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디플로마 - 1924	1929-55
	매리 영	Baker University, 디플로마 - 1907	1920-40
구(舊)교원	플로렌스 부츠	Beaver University 디플로마 - 1906	미기재

1930년 발행된 『카탈로그』에는 캐서린 베이커(Catherine Baker), 플로렌스 부츠(Florence E. Boots), 조세핀 대머론(Josephine L. Dameron), 그레이스 우드(Grace H. Wood), 매리 영(Mary E. Young) 등 5명의 선교사 교원이 등장하고, 7년 뒤에 발간된 『일람』에는 베이커, 대머론, 카트린 고어만(Kathleen Gorman), 우드, 매리 영 등 5명의 선교사 교원이 등장한다. 즉 1930년과 1937년의 상황을 비교하면, 4명의 선교사는 그대로 재직하고 있으며 부츠 대신 고어만이 새로 합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이화』²⁹⁾에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화 선교사 명단에 따르면, 캐서린 베이커, 조세핀 대머론, 그레이스 우드, 매리 영은 이화에 풀타임으로 근무한 선교사인 반면 플로렌스 부츠와 카트린 고어만

26) 출신 학교는 『카탈로그』, 10-13의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카트린 고어만의 경우는 예외이다.)

27) 재직년도는 Marion L. Conrow, *Our Ewha: A Historical Sketch of Ewha Womans University*, 71-73을 참고하였다.

28)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253.

29) Marion L. Conrow, *Our Ewha: A Historical Sketch of Ewha Womans University*, 71-73.

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다. 이들 중 부츠는 선교사의 아내의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된 주부 선교사³⁰⁾이다. 플로렌스 부츠의 남편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치과 교수인 J. L. 부츠로 미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소속의 선교사였다. 반면 고어만은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지사장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부임한 남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화여전에서 가르치게 된 경우이다.³¹⁾ WFMS 소속의 전문직 선교사였던 매리온 칸로는 이 두 명을 파트타임 선교사로 분류하면서, 재직년도를 기입하지 않았다.

위의 명단을 통해 우리는 이화여전에서 풀타임으로 활동한 음악 전공 선교사가 4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재직년도를 보면, 미국인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 당하는 1940년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상당히 장기간 재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교사들의 재직년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매리온 칸로가 그레이스 우드의 재직년도를 ‘1929-1955년’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1945년 이전에 이화여전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경우 해방 이후 다시 이화로 돌아와 활동을 이어간 경우가 간혹 있었다. 예를 들어 칸로 자신이 다시 한국을 찾았으며, 음악과에서는 유일하게 우드가 다시 이화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런 경우 선교사들의 재직년도를 해석하는 입장이 『이화100년사』 집필진과 선교사인 칸로 사이에 차이가 난다. 전자는 우드의 임기를 한국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1930-40년, 1947-54년’으로 기록한 반면³²⁾, 칸로는 불가피하게 한국을 떠나있어야 했던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1929-1955년’으로 적었다.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30) 강선미는 여성 선교사를 전문직 선교사와 주부 선교사로 구분하였다. 강선미, 『한국의 근대 초기 페미니즘 연구』 (푸른사상, 2005), 82.

31) K. Gorman, *My Music Pupils around the World*.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257에서 재인용.

32)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자료집』, 169.

서는 강제 퇴출된 기간 동안에도 자신이 ‘이화의 선교사’라는 의식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선교사들의 소속 선교회에 대해 살펴보면, 남감리교 여성 선교회 (Woman's Missionary Council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소속인 조세핀 대머론을 제외한 3명의 선교사들은 모두 이화학당을 처음 설립하고 운영한 북감리교 해외 여성 선교회 소속이었다. 『이화100년사』를 보면, 전문학교 인가 이후 학교 운영 면에서 선교회들 간의 경영연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³⁾ 1925년 남감리교회가 가장 먼저 협동 경영을 결의하였으며, 이후 1927년에는 캐나다 연합교회 및 호주 장로교회가 합류하였다. 1927년에 이루어진 대머론의 임용은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 및 일본인 교원의 명단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이화여전 음악과의 한국인 및 일본인 교원

재직상황	이름	성별	출신 학교 ³⁴⁾	재직년도 ³⁵⁾
재직 교원	계정식	남	Universität Basel - 박사 ³⁶⁾	1936-43
	김메리	여	Michigan University, Ann Arbor - 석사	1934-47
	김애식	여	Allison-White Conservatory	1923-47
	김원복	여	일본고등음악학원	1937-39
	김은자	여	이화여전 음악과	1937-39
	박원정	남	American Conservatory, Chicago - 석사	1937-39
	윤성덕	여	North Western University, Evanston - 학사	1932-39
구(舊) 교원	고봉경	여	Wesleyan Conservatory of Music	1934-37
	김복실	여	이화여전 음악과	1932-37
	오바 유노스케	남	동경음악학교	1928-30
	박경호	남	Cincinnati Conservatory	1932-37
	박현숙	여	이화여전 음악과	1935-36

33) 이에 대한 정보는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182를 참고하였다.

재직상황	이름	성별	출신 학교 ³⁴⁾	재직년도 ³⁵⁾
구(舊) 교원	안기영	남	Allison-White Conservatory	1928-33
	이순영	여	이화여전 음악과	1930-35
	이은라	여	Boston University - 석사	1911-29
	정훈모	여	동경제국음악학교	1936-37
	함화진	남	거문고로 이평문, 가야금으로 명완벽을 사사	미기재
	홍영후(홍난파)	남	일본고등음악학원	1935-36
	황재경	남	연희전문학교	1935-36

1937년 당시의 음악과 재직 교원의 현황을 선교사 교원과 한국인 교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교사 교원이 5명 그리고 한국인 교원이 여성 5명 및 남성 2명으로 총 12명이다. 즉 압도적으로 여성 교원의 수가 우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성 교원으로는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계정식과 성악을 전공한 박원정이 함께 하였을 뿐이다. 한국인 여성 교원 5명에는 이화의 졸업생인 김메리, 김애식, 김은자, 윤성덕 등 4명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화 출신이 아닌 여성 교원은 당대의 피아니스트로 무대를 누빈 김원복 한 명 뿐이었다. 이를 통해 이화여전 음악과가 교원 특히 여성 교원의 임용에 있어 전적으로 이화 졸업자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에 제시된 구교원의 명단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총 6명의 여성 교원 중 고봉경, 김복실, 박현숙, 이순영, 이은라 등 5명이 이화학당 대학부 또는 이화여전 출신이었다. 구교원 중 유일하게 이화여전의

34) 교육경력은 일차적으로 1945년 이전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와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35) 구직원의 재직년도는 『일람』을, 재직 교원의 경우는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자료집』을 참고하였다.

36) “계정식,”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4128 (2012. 12. 2. 검색).

졸업생이 아니었던 정훈모는 당대의 소프라노로 활발한 활동을 벌인 여성 성악가였다. 구교원 중 남성 교원의 수는 모두 6명이다. 이 중에서 박경호와 안기영을 제외한 함화진, 홍난파, 황재경, 오바 유노스케(大場勇之助)³⁷⁾ 등 4명은 재직기간이 2년 이내로 짧았기 때문에 이화여전 음악과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화여전 음악과는 교원의 구성에 있어, 장기 근속한 선 교사들과 이화 출신의 여성 교원(이 중에서 이은라, 김애식, 김메리가 장기간 재직했다)을 중심으로 운영된 학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남성 교원 중에서는 계정식이 최장기간(8년) 재직하였다.

[표 5]는 이화여전 음악과의 한국인 교원이 최종 학위를 취득한 국가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이화여전 음악과의 한국인 교원이 최종 학위를 취득한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여자	4	5	2	-
남자	2	3	1	1

전체 교원 18명 중 약 67퍼센트인 12명이 외국의 교육 기관을 졸업하였으며, 유학 경험이 없는 교원의 대부분은 이화여전 출신이었다. 유학 지역을 보면 미국의 비중이 60퍼센트를 넘으며, 특히 여성 교원의 경우는 70퍼센트를 넘는다.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이화여전 음악과의 교원은 남녀를 막론하고 미국 유학 경험을 중시하여 선발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에서 유학한 음악가들의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37) 오바 유노스케는 이화여전 음악과에서 가르친 유일한 일본인 교원이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金志善, “植民地朝鮮における中等音樂教育と教員の實態,” 『こども教育宝仙大學 紀要』 2 (2011), 39을 참조.

5. 1920·30년대 한국 사회 속의 이화여전 음악과: 차별성과 사회적 역할

다음으로 이화여전 음악과가 1920·30년대 한국 양악계 속에서 어떤 성격의 기관으로 존재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 일차적인 문제는 당시 양악계를 구성했던 음악가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음악가의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일차적으로 음악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고등보통학교의 음악교사를 음악가로 부를 수 있을지, 부민관 등의 공식 무대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출연한 사람을 음악가로 부를 것인지, 음악학교의 졸업장을 소유한 사람을 음악가로 부를 것인지 등의 까다로운 문제가 뒤따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당시의 잡지에 실린 칼럼 두 편을 참고하는 정도로 평이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이 글이 식민지 시기의 음악가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음악가의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는, 식민지 조선의 양악계와 이화여전 음악과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필자가 참고하려는 칼럼은 “조선음악가일람”(朝鮮音樂家一覽)³⁸⁾과 “악단(樂壇)메리—그라운드”³⁹⁾로, 전자의 경우 35명, 후자의 경우 74명의 음악가의 명단을 기재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름, 나이, 학업, 현재 지위를 기록하였고, 전자의 경우 원적(原籍)도 함께 실었다. 음악가의 명단을 제시하는 칼럼이 잡지에 실린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양악계’라는 것이 틀을 갖추

38) “朝鮮音樂家一覽,” 『중앙』 8호 (1934. 6). 김수현·이수정, 『한국근대음악기사자료집』 권4 (민속원, 2008), 355-358에서 재인용.

39) “樂壇메리—그라운드,” 『삼천리』 6권 9호 (1934. 9). 김수현·이수정, 『한국근대음악기사자료집』 권4, 471-476에서 재인용.

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양악계의 규모가 작았음을 뜻하기도 할 것이다.

이제 위의 두 칼럼을 통해 1934년경의 양악계의 인물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앞에서 살펴본 이화여전 음악과 교원의 교육적 배경을 비교함으로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화여전 교원의 명단이 『일람』이 발행된 1937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반해, 양악계의 명단은 1934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37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음악계의 1년”⁴⁰⁾에 실린 28명의 한국인 음악가들의 명단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먼저 음악가들의 교육적 배경, 특히 유학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 양악계 일반과 이화여전 음악과를 비교해보자. 20세기 초반, 한국의 현실에서 유학은 음악가 지망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한국 땅에서 전문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성의 경우는 전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고, 여성의 경우도 이화여자전문학교 한 곳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음악가 지망생들은 남자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유학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여성도 이화여전이 제공하는 교육 이외에 다른 경험을 하려면 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게 유학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동시에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했다. 음악가를 소개할 때 ‘○○○씨는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라는 표현이 첫머리에 사용되었다. 또한 당시 양악계는 주로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되었고 연주계가 그리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력이 음악가들의 경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유학한 지역이 음악가를 구별하는 중요한 범주였음은 “메리 그라운

40) “음악계의 1년,” 『동아일보』, 1937년 12월 21일자.

드”의 필자가 음악가들을 “동경서 연구한 이와 기타 외국서 한 이와를 보기조케 분류하기로 한다”고 기술한 데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⁴¹⁾ 이러한 분류가 필자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사회의 통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자료를 통합하여 음악가들의 명단을 추출하고, 그 중에서 외국 유학을 다녀온 음악가들의 명단을 정리하면 모두 68명의 이름을 얻을 수 있다(음악가들의 명단은 [부록] 참고). 이들을 유학 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음악가들의 유학 지역

미국	일본	유럽	캐나다	합계
10	51	5	2	68

위의 표를 통해 유학을 다녀온 68명의 음악가들 중 일본에서 유학한 수가 51명으로, 일본 유학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지리적인 근접성뿐 아니라, 식민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일본 유학 다음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미국 유학이다. 비록 일본 유학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이지만 기타 국가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이기도 하다. 위의 표에 제시된 미국에서 유학한 10명의 음악가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살펴보면, 고봉경, 김메리, 김세형, 박경호, 박원정, 송경신, 안기영, 안익태, 윤성덕, 현제명 등이다. 이들 중 송경신과 안익태, 현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화여전에서 교원으로 활동하였다(김세형은 1937년 이후에 가르친 관계로 『일람』의 교원 명단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즉 유학 경험이 있는 음악가들 중 미국 유학을 다녀온

41) “樂團 메리-그라운드,” 『삼천리』 6권 9호 (1934. 9). 김수현·이수정, 『한국근대음악 기사자료집』 권4, 472에서 재인용.

경우가 전체의 15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이화에서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들을 고려해보면, 미국인 선교사와 미국에서 음악을 전공한 한국인 교원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이화여전 음악과가 한국 양악계 내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교육기관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표 5] 참고). 여기에서 ‘차별화’라는 표현은 반드시 실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화여전 음악과가 미국계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당시 양악계 내에서 자리매김 하였음을 지적하고 싶다.

다음으로 이화여전 음악과의 중요한 특징은 피아노 교육에 집중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유독 피아노 영역에서 이화여전 출신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조선음악가 일람”을 참고로 전공별 음악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악 전공이 12명, 피아노 전공이 15명, 바이올린 전공이 6명, 첼로 전공이 2명이다. 각 전공 별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성악의 경우는 7 대 5로 남성이 우세하며, 여성 성악가 중에서 이화여전을 졸업한 경우는 채선엽 한 명뿐이다. 반면에 피아노의 경우는 남성 대 여성의 수가 5 대 10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중에서 이화여전 출신이 6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화여전의 졸업생들은 전문 피아노 연주자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학교, 교회 등의 공동체 안에서도 ‘피아노를 다루는 음악가’로 활발한 활동을 펴나갔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피아노(또는 풍금)를 능숙하게 다루는 이화 학생’이라는 이미지는 이화의 오랜 전통이었다. 김활란의 회고에 따르면, 이화학당 당장을 역임한 룰루 프라이(Lulu E. Frey, 1868-1921)⁴²⁾는 “이화의 출신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영어에 능통해야하고, 풍금을 잘 탈 줄 알아야

42) 룰루 프라이: 1907년 이화학당의 4대 당장에 선출되었다. 1910년 대학부를 개설하였으며, 192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당장을 역임하였다.

하고, 국한문 성경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³⁾ 또한 1926년에서 1938년까지 음악과장을 역임한 매리 영에 따르면, 당시에는 “교사를 구할 경우 보통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⁴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화여전 음악과의 교원들은 많은 시간을 타전공생들을 위한 피아노 레슨에 할애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정을 매리 영의 “음악과 보고서: 1937년 6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과가 피아노 또는 오르간 레슨을 고학년 학생들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문과 저학년 학생 대부분이 레슨을 원하고 있다. 가정과의 경우 피아노나 오르간이 필수과목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학생이 레슨을 신청하였다. 또한 보육학교는 연습 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해 음악과는 방, 악기, 교사를 구하느라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⁴⁵⁾

1937년 당시 피아노 교원을 충당하는 문제가 얼마나 급박하였는가를 박원정이 음악과 교원으로 채용되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마침] 신시내티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시카고의 아메리칸 콘서바토리어에서 석사를 마친 박원정씨가 찾아와서 이화에서 가르칠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는 성악을 전공했다. 나는 “당신이 피아노를 전공하였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유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피아노도 함께 전공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레슨을 시작하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

43) 김활란, 『그 빛 속의 작은 생명』 (여원사, 1965), 69.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52-53에서 재인용.

44) Mary E. Young, “What the King did not know,” *Korea Mission Field: A Monthly Journal of Christian Progress*, Vol. 34, No. 4 (1938), 71.

45) Mary E. Young, “Report of Music Department: June, 1937,” 3. (이화역사관, VII-B-7-8-4)

원을 ‘즉석에서’ 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⁴⁶⁾

이화 출신의 피아노 연주자들이 전문 음악가와 아마추어 음악가로 활발한 활동을 벌인 반면, 다른 기악 분야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침체되어 있었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계정식이 1936년 이화여전의 교원으로 부임하였지만, 1937년 당시 “바이올린 전공은 한 명 뿐이었으며 몇 명이 부전공으로 바이올린을 선택하였을 뿐이었다.”⁴⁷⁾ 계정식 이전에는 플로렌스 부즈가 바이올린을 지도하였다.

성악 전공의 상황은 조세핀 대머론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⁴⁸⁾ 1935년도의 음악과 정규학생 67명 중 모두 20명의 소녀들이 성악을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전공 학생 이외에 모든 피아노 전공생들이 4년 동안 클래스 보이스(class voice) 수업을 들었으며, 문과와 가정과 학생들은 합창 수업을 그리고 보육학교 학생들은 합창 수업과 오르간 또는 피아노 레슨을 받았다.

피아노와 성악 수업에 대한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이화에서는 음악 전공생뿐 아니라 문과, 가사과, 보육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음악적 훈련(합창과 피아노/오르간 레슨)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이화여전을 졸업한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직장과 교회 안에서 음악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화여전 음악과가 당시 한국 사회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원을 다수 배출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이나 취업은 늘 이화의 선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화에 재직한 선교사들이 남긴 문헌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내용이

46) Mary E. Young, “Report of Music Department: June, 1937,” 2.

47) Mary E. Young, “Report of Music Department: June, 1937,” 1.

48) Josephine Dameron, “Report to Woman’s Missionary Council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F. S. Parker,” 2. (이화역사관, 수-II-B-2-3-3-33)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화 졸업생의 미국 유학이며 다른 하나는 졸업생의 교직활동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문학교 인가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졸업생들에게 중등학교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중등교원의 배출은 이화의 선교사들이 자랑할 만한 업적이었으며, 이는 매리 영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화 칼리지 음악과의 성공과 발전은 교원이 된 졸업생들의 활동에 의해 명백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말로 1937년도 보고서를 시작하였다.⁴⁹⁾

『일람』에 기재된 이화여자전문학교 졸업자 상황표를 보면,⁵⁰⁾ 졸업생들의 상황이 교원, 의사, 상급학교, 가정, 기타, 사망의 6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음악과 출신 중 교원으로 활동하는 졸업생은 모두 38명으로, 문과의 27명이나 가사과의 23명보다 훨씬 많은 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음악과 졸업생 68명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리 영은 KMF에 기고한 글에서, “모두 40명이 가르치고 있으며, 대부분 고등보통학교와 성경학교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오천 명 이상의 소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하였다.⁵¹⁾

현재의 시각으로는 중등음악교원을 음악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중등음악교원은 전문음악교육을 받은 음악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였다. 또한 중등교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본 소재의 고등사범학교나 기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인텔리’의 직종이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화여전 음악과가 배출한 다수의 중등음악교원을 음악가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9) Mary E. Young, “Report of Music Department: June, 1937,” 1.

50) 『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學校一覽』, 130-131.

51) Mary E. Young, “What the King did not know,” 71.

6. 이화여전 음악과와 정치·문화적 제국주의

이상에서 필자는 이화여전 음악과의 주요한 특징으로 미국계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피아노 교육에 집중하였고, 음악중등교원의 양성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왜 이화여전 음악과는 이런 모습으로 1920·30년대 한국 양악계(또는 한국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이화여전이 WFMS의 여성 선교사들이 세운 여성교육기관이었다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화여전 내부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정은 선교사들의 세계관, 여성(교육)관, 음악관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이화여전 음악과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여성(교육)사 및 음악교육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미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선교사의 삶을 선택하도록 만든 미국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들이 한국 땅에서 성취하고자 했던 교육적 목표에 대한 이해가 이화여전 음악과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화여전의 여성 선교사들이 마주하였던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이해이다. 이들이 추구하였던 이상적인 음악교육기관의 모습이 이화여전 음악과를 통해 구현되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식민지 조선 사회라는 프리즘을 통해 굴절된 형태로 존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화의 여성 선교사들은 미국의 선교본부, 한국에서 활동한 남성 선교사들과 교섭하여야 했으며, 무엇보다 일제가 구축한 식민지 교육제도 하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식민 본국의 음악학교들과 경쟁해야 했다. 또한 한국 사회 안에서의 음악가들의 위상과 특히 여성 음악가들에게 허용되었던 활동의 공간 등이 이화여전 음악과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이런 상황의 이면에는 역시 식민지라는 전제 조건이 작용하고 있었다.

위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정치·문화적 제국주의가 이화여전 음악과의 성격을 규정하는 큰 틀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화여전 음악과의 연구는 결코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지리적·민족적 경계에 한정되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제국적 질서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이화여전 음악과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하나의 교육기관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을 넘어 식민지 시기, 급격한 근대화가 이루어지던 시점의 한국 사회를 조명할 수 있는 보다 의미 있는 작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및 악보

『동아일보』

『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學校一覽 (昭和十二年)』. 1937.

大韓帝國學部 編. 『普通教育 唱歌集 第一輯』. 1910.

Appenzeller, Alice R. “Changes at Ewha Hakdang, 1925.”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25), 45-50.

Dameron, Josephine. “Report to Woman’s Missionary Council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F. S. Parker.” (이화역사관, 수-II-B-2-3-3-33)

Ewha College Catalogue. Y. M. C. A. Press, 1930.

Young, Mary E. “What the King did not know.” *Korea Mission Field: A Monthly Journal of Christian Progress* 34/4 (1938), 68-72.

_____. “Report of Music Department: June, 1937.” (이화역사관, VII-B-7-8-4)

단행본 및 논문

강선미. 『한국의 근대 초기 페미니즘 연구』. 푸른사상, 2005.

김수현·이수정. 『한국근대음악기사자료집』. 민속원, 2008.

김은하. “이화학당과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중심으로 본 초기 한국 여성 작곡가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3 (2009), 47-78.

노동은. 『한국 근대 음악사 1』. 한길사, 1995.

민경찬.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 (양악편): 한국 근·현대 우리 양악 이야기』. 두리미디어, 2006.

-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7.
-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박사학위 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9.
-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2001.
- 이유선. 『한국 양악 100년사』. 음악춘추사, 1985.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나남출판, 2003.
-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이화100년사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장석만 외. 『한국 근대성 연구의 길을 묻다』. 돌베개, 2006.
- 최승현. “이화음악 1920년대 - 1930년대의 음악교육.” 『한국음악학회논문집 음악연구』 15/1 (1997), 211-246.
- _____. “1930년대 이화 음악과의 『피아노旋律法』 출간과 선진 20세기 피아노교수법의 도입.” 『이화음악논집』 10/2 (2006), 1-31.
- 마월철 / 한용진 옮김. 『한국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 대학모델의 전과 연구』. 교육과학사, 2000.
- 金志善. “植民地朝鮮における中等音樂教育と教員の實態.” 『こども教育宝仙大學 紀要』 2 (2011), 27-44.
- Conrow, Marion L. *Our Ewha: A Historical Sketch of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1956.

Abstract**American Missionaries and Music Department
at Ewha College:
Toward Korean Music History “Beyond Korean”**

Huh, Jeeyeon

Although Music Department at Ewha College was the only registered music institution in college level in the colonial Korea, it has been sparsely discussed as a part of Korean modern music history. The lack of discussion regarding Ewha Music Department seems to be derived from the narrow scope of music historiography, which was confined to the musical activities only by Korean, and held in Korea.

Investigating the musical activities of Music Department at Ewha College, I attempt to broaden the scope of previously written Korean modern music history: As Ewha College was an institution governed by American missionarie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music education there was strongly involved with the (context of) American and Japanese modern music history.

I trace how Music Department at Ewha College constructed its own characteristics within Korean society in these complex circumstances, by reviewing the materials published by Ewha College and documents left by missionaries. Shedding light on the neglected part of Korean modern music history, I argue that the music education at Ewha College was closely related to political and cultural colonialism.

Keywords: Ewha College, music department at Ewha College, modern music history, music education, music teacher, piano.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0월 23일	2012년 11월4일~23일	2012년 12월 1일

(부록) 유학 경험이 있는 음악가들과 유학지역⁵²⁾

번호	이름	전공	유학지역
1	계정식	바이올린	유럽
2	고봉경	피아노	미국
3	권태호	성악	일본
4	김기석	성악	일본
5	김대근	성악	일본
6	김메리	피아노	미국
7	김문보	성악	일본
8	김상권	피아노	일본
9	김세형	작곡	미국
10	김승학	성악	일본
11	김영길	성악	일본
12	김영환	피아노	일본
13	김원복	피아노	일본
14	김인주	첼로	일본
15	김재훈	바이올린	유럽
16	김정순	피아노	일본
17	김직자	성악	일본
18	문하영	성악	일본
19	박경호	피아노	미국
20	박경희 ^a	성악	일본
21	박경희 ^b	성악	일본
22	박계성	피아노	일본
23	박원정	성악	미국
24	박태철	바이올린	일본
25	백남철	성악	일본
26	백정진	피아노	일본

52) 이 표는 “朝鮮音樂家一覽”(1934), “樂壇메리—그라운드”(1934), “음악계의 1년”(1937)을 기초로 정리하였다. 유학 지역이 한 곳 이상일 경우 최종교육기관이 속한 지역을 적었다(예를 들어 일본의 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난 경우, 유럽으로 표기). 흥난파의 경우 미국 유학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적었다.

번호	이름	전공	유학지역
27	송경신	피아노	미국
28	송성석	성악	일본
29	안기영	성악	미국
30	안병소	바이올린	유럽
31	안보승	성악	일본
32	안성교	바이올린	일본
33	안익태	첼로	미국
34	오우년	바이올린	일본
35	유귀남	피아노	일본
36	유부용	성악	캐나다
37	윤극영	작곡	일본
38	윤성덕	피아노	미국
39	윤심덕	성악	일본
40	윤태순	피아노	일본
41	이광준	피아노	일본
42	이면상	작곡	일본
43	이미좌보	성악	일본
44	이승학	성악	일본
45	이에내	피아노	유럽
46	이영세	바이올린	일본
47	이인선	성악	유럽
48	이종태	작곡	일본
49	이흥렬	피아노	일본
50	장윤덕	바이올린	일본
51	장학준	성악	일본
52	정훈모	성악	일본
53	조영은	성악	일본
54	조옥윤	피아노	일본
55	조은경	피아노	캐나다
56	주○○	바이올린	일본
57	채규엽	성악	일본
58	채동선	바이올린	유럽

번호	이름	전공	유학지역
59	최민례	성악	일본
60	최순례	성악	일본
61	최영순	성악	일본
62	최창은	성악	일본
63	최호영	바이올린	일본
64	최희남	성악	일본
65	한기순	성악	일본
66	현재명	성악	미국
67	홍난파	바이올린	일본
68	홍성유	바이올린	일본